



편집자의 말

『아시아리뷰』 4권 1호(통권 7호) 발간에 붙여

안청시 (편집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들어가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2011년 정기 학술지 『아시아리뷰』를 창간한 이래 이번에 제4권 제1호(통권 제7호)를 펴내게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아시아리뷰』는 ‘아시아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연구의 새 주제들을 발굴하고 연구 지평을 넓혀나가는 한편, 인문·사회계 종합학문 발전에 앞장서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할 것을 목표로 매진해 왔다. 아시아 연구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지향적 탐구 경로 과정에서 편집진은 창간호부터 연구 전략과 방법론의 쇄신과 발전을 모색하는 글들을 특집으로 다루어왔다. ‘아시아란 무엇인가?’(김경동, 2011)와 아시아적 역사·문화와 전통에 조응하여 인간 이해의 여러 차원에 대해 성찰하고 아시아 연구의 새 출발을 내딛는 담론 의제를 모색하는 해석학적 고찰을 다룬 글(김우창, 2011)들이 그 예다. 이어서 한국 학계의 지역학 연구 실적들을 리뷰하고 ‘아시아 다시보기’(안청시, 2012)를 통해 그간의 실적을 성찰적으로 정리, 보고하는 글들을 ‘아시아 지역 주제연구의 쟁점과 현황’으로 묶어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기획, 특집 논문들로 펴내 왔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 이동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글모음이 제1권 제2호(2011년 12월)부터 제2권 제1호(2012년 6월), 제2권 제2호(2012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특집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이번 제4권 제1호에는 기획특집으로 먼저 두 편의 국제학술회의 기조 발제문을 번역, 소개한다. 이어서 편집위원회에서 기획, 선정한 논문 3편과 1편의 기고

논문으로 4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서평 부문에서는 최근에 국내에서 발간된 학술서지들 중 3권을 선별하여 독자들에게 처음 소개, 논평하는 일반 서평(book review)으로 실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서평 부문에는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이 분야 연구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문헌 안내와 해설을 분야와 주제별로 3인이 분담해서 소개, 논평하는 연구 안내용 문헌서평(literature review)을 수록했다.¹

먼저 프라센짓 두아라(P. Duara,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와 강명구(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의 두 글은 2014년 3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아시아연구의 새 지평’(New Horizons of Asian Studies: Asia Research Directors Conference, March 1~2, 2014)에서 두 기관을 대표하여 각각 발표한 기조 발제문을 옮긴 것이다. 아래에서는 아시아 연구의 새 연구모델과 어젠다 모색에 착안하는 두 발제자의 글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어지는 글들에 대한 요지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편집자의 말에 갈음하기로 한다.

아시아 연구의 새 지평

역사학자인 두아라 교수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화석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구 시스템은 우주와 자연법칙의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류 자신의 활동이 지구 행성의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내는 새로운 지질시대, 즉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에 돌입했다며 인류 생성 이전의 지질 시대인 홀로세(Holocene)와 구분해서 생각한다. 인류세 시대를 사는 인류는 인간 전체가 집단적으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과 생명 연장을 스스로 결정하는 독특한 지질대(地質代)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제약들 속에서 인류세에 진입해 있는 인류는 지금까지 서구에서 생성, 계승

¹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동향에 대하여는 2012년 엄구호의 글이 먼저 소개된 바 있다(엄구호, 2012: 121-152). 그리고 이 서평 글을 준비하는 데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중앙아시아연구센터를 이끄는 신범식 교수의 이해와 협조에 크게 힘입었음에 감사를 표한다.

된 (자연)과학 모델과 민족국가 발전 목표에 경도된 도구적 기능에 의존하는 학문 연구 관행과 방법에 기반하여 각종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난관과 문제 해결에 매달려 왔다. 그런데 오늘의 인문사회과학과 아시아 연구는 변화하는 세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연구의제들이 지구 행성의 인류적 삶을 둘러싼 각종 문제와 위협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져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류적 삶과 맥락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두아라는 성찰적으로 진단한다.

두아라는 앞으로의 남은 인류세 시대의 인문사회과학계 학문과 아시아 연구는 인류와 지구적 발전에 대해 장기적 시각과 영향력을 고려하며 새로운 연구 지평을 향해 기존의 아시아 연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아시아와 세계를 ‘지속 가능한 현대성’ 패러다임 하에서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는 아시아 연구자들은 지역현실에 적실한 학문과 방법을 다시 찾아내야 하는 요청을 받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는 먼저 현금의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을 재평가해 나가야 하며, 인문사회과학계 학문의 지식 생산이 답변해야 할 새로운 권력지리를 확인하며, 어떻게 우리의 탐구를 집단적(아시아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숙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현대성’이란 패러다임 하에서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경을 넘어 ‘초국경’ 아시아의 “서로 네트워크된 지역과 나라들 간의 연결망”을 복원하여 다시 잇고, 연구를 통해서 아시아인의 삶과 안정에 어느 정도 윤리적 책임을 견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자신의 주도 하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아시아 연결의 역사사회학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두아라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아시아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은 다양한 근원들부터 출현해야 하며, 특히 전 세계에 걸쳐 부상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와 사회적으로 매개된 네트워크로부터 출현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연구자들도 이 점에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사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강명구는 아시아에 대한 연구 범주 설정과 더불어 ‘어떤 아시아’, ‘누구를 위한 아시아인지’에 대한 다양한 상상과 그림들을 그려보는 것은 아시아가 부상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바람직한 일일 뿐만 아니라 긴급하다고 썼다.² 강 교수의 글은 특정 아시아 국가(들)의 고식적 주권 개념과 시대착오적인 국가패권주의 프로젝트를 넘어선 평화와 변영의 아시아를 위한 비전의 하나로서 ‘동아시아 해석’이라는 ‘초국경’ 아시아 협력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에 하나의 새로운 협력 지대의 수립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상과 성찰을 통해 탈냉전 이후의 세계에서 새로운 아시아를 구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 예시, 토론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칭된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의 지리적 기반이 되는 동아시아 해석이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바다의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공간이며, 위로 극동러시아로부터 중국의 동북 3성 일본 섬과 한반도, 오키나와와 필리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까지를 포괄하는 바다로 연결된 대륙과 섬을 포함한다. 그것은 “국가적 영토로 묶인 영토와 바다일 뿐만 아니라 그 공간과 장소를 살아온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역사와 문화, 물질적·경제적 삶을 가르킨다”고 말한다.

강명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국경 협력을 상상하는 작업은 서구와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두아라의 발제와 궤를 같이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국경을 상상하는 일은 국가주의적 동원에 포획되지 않은 시민들 간의 새로운 연대를 설정해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서도 강명구는 ‘아시아 연구자들도 이 점에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사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두아라의 견해에 공감한다. 최근 영토 문제와 역사 분쟁, 일본의 우경화 등 동북아의 갈등은 이 지역에 –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단위로서 – ‘초국경’ 범주를 설정하고자 하는 시민과 시민사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대안적 공동체를 상상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²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대동아공영권 망령처럼 강대국의 패권적, 지배적 권력 작동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이와 같은 성찰적 상상은 일면 필요하고 ‘긴요하다’고 전제한다.

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강명구의 발제는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담고 있다.

- 아시아 연구들이 서구 이론에 의존해 왔던 지식 생산의 식민성을 넘어서 내부의 시각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개념과 이론, 설명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발굴하고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아시아 지역 국가들 내부에서 인문사회과학의 분과학회들의 활동들을 ‘아시아화’, ‘지역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은 한국인의 삶과 한국 사회의 이해를 통해 보편적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증진하는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 한국, 한반도, 한국인을 아시아적 맥락으로 이끌어내는 연구 작업 위에서 ... 어떻게 아시아적 맥락에서 사고할 것인가에 대하여 숙고하고, 스스로 기존의 지역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과학을 ‘지역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시아 연구의 지평 확대와 연구 의제 설정 문제와 관련해서 두 발제문에 함의되어 있는 주요 결론을 요약해 본다.

- 세계와 아시아인들을 위협해 오는 테러리즘, 생물학적, 화학적, 경제적 유해 환경 위기에 의한 것이건 간에 우리가 국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배타적인 국가적 이익관을 넘어서야 한다. 국가 간 협정이든 초국가적 조직을 통해서든 기존의 주권에 대한 게임의 규칙은 변경되어야 한다.
- 인류세 시대의 월경(越境) 문제, 대규모 이주 문제, 자본주의와 관련된 환경의 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권 국가들보다 작은 집합체들이 국가적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물 관리 문제 등 공공재나 공통재의 조정 문제 등은 지역 규모 단위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물 관리 문제와 같이 다른 나라로의 물 흐름을 관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권 국가들 상호 간의 협조와 투명성 창출이 필요하다.
- 아시아 연구는 인류로 하여금 더 폭넓은 삶의 조건과 필요에 대해 숙고하는 능력을 기르고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출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이어야 한다.

- 아시아 연구자들 앞에 놓인 우선적 탐구 과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과도하게 전문화, 세분화, 구획화된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여러 분과 학문들과 학회 활동들을 어떻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가를 상상하고 성찰해 나가는 노력과 지적, 과학적, 윤리적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일이다. 인문사회과학은 역사, 윤리, 지리, 지역적 지식, 거버넌스와 사회자본 등의 분야를 선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필요로 한다.

세계 속의 한국, 아시아의 한국

기획특집으로 게재되는 4편의 연구논문은 다시 한 번 역사와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을 ‘세계 속의 한국’, ‘동아시아의 한국’으로 돌리는 글들로 구성해 보았다.

정근식의 논문 “중국 갑오전쟁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1894년 동북아시아전쟁의 개념화를 위하여”는 동아시아의 ‘역사와의 전쟁’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기록(記錄), 전시(展示), 재현(再現)하는 한국과 중국의 두 전쟁기념관³의 프레임과 역사 자료들을 비교·분석하는 일에서 착안되었다. 이 글은 정 교수가 산둥지역을 답사하며 “중국 갑오전쟁박물관의 전시를 보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한계를 생각해 보고”,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을 “다시 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1894년 한국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민족사의 대사건이며, 이어서 1894~1895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지역사의 분수령을 가른 대사건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한국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중국 웨이하이(威海)의 갑오전쟁박물관은 두 사건을 각각 별개의 시각으로 구분하여 기념전시 자료와 기록물들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박물관 전시 구성을 하고 있다. 한국의 전쟁기념관도 마찬가지로 청일전쟁을 한국인이 겪은 전쟁의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지금까지 위의 두 지역사적 대사건에 대한

³ 중국 웨이하이(威海)의 갑오중일전쟁박물관과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도 각자 다르고, 전시물과 자료를 재현해 온 입장도 구분되어 사건의 전체상이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못했음을 정 교수는 관찰, 지적한다.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연속된 하나의 사건”으로, 19세기 후반기부터 한국사가 동아시아 지역사나 세계사의 일부로 편입되는 동아시아 전체 역사를 바꾸어 놓은 대사건이요, 중국 중심의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가 일본 중심의 새 질서로 교체되는 구조적 전환기 아시아를 관통하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근식은 두 나라는 전시 프레임의 현재 시각과 입장을 재검토하여 재구성하고, 통합된 역사적 시각으로 정립하고, 청일전쟁에 대한 기억과 자료들을 재정비해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쟁박물관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청일전쟁에 대한 기록, 전시, 재현 자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한다.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 이덕희(Duk Hee Lee Murabayashi) 소장의 연구논문 “하와이 다문화에 한인 이민자들도 기여했을까?: 하와이 한인 이민사의 경험과 교훈, 1903~1959”는 저자가 금년 초에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번역, 수정, 보완하여 『아시아리뷰』에 기고해 준 글이다. 이덕희는 하와이에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형성, 발전된 계기와 역사적 배경을 일별하고, 111년 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정착하기 시작한 한국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의 다문화화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적응했는지를 추적한다. 이어서 하와이의 다문화화에 한인 이주자들이 어떤 역할과 공헌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해 여러 사례와 역사 자료들을 통해서 둘러본다. 하와이 주의 다문화 사회, 다인종 사회 구성 및 다문화 만들기 사례와 한인 이주민들의 참여, 기여, 역할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시사점과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탐색하고 있다.

이덕희는 다문화 하와이를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요인이 예컨대, 사탕수수 농장의 이주 노동자 유입 정책을 시행한 주 정부의 정책이었다거나 연방 이민법규와 같은 법제들이었다는 견해를 반박한다. 하와이 다문화 형성에 특정의 다수 지배인종이나 지배집단이 주도했다거나, 정부의 이민 정책 또는 이주

민 구제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시민 의식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쓰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다문화 형성이 하와이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타국의 문화를 다르다고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의식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 경제 수준에 근거를 두는 문화 우월주의는 다문화 사회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현재 한국 안에는 결혼 이민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적과 문화 배경을 가진 125만 명의 이민자들이 정착해 우리 이웃으로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동아일보』, 2014/5/24). 오랫동안 단일민족 신화가 지배해 왔던 한국 사회는 바야흐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유동적 시민권 개념이나 다문화주의 성장 문제 등에서도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과 노력을 증진해 가야 한다. 사회 가치와 인문 교육에서 내 나라와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폭넓은 삶의 조건과 필요 요소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덕희의 글은 한국인 이민자들이 다문화 미국 건설 역사에서 보여준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가 다문화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글로벌 시민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있음을 보여준다.

정미경의 “한국 학계의 캄보디아, 라오스 연구: 현황과 쟁점”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과 가장 최근에 국교를 복원, 정상화한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 현황과 실적물들을 집대성, 정리하고 그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두 나라가 한국에게 정치, 경제, 지리적으로 점차 비중 있는 교역 및 정치 외교적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두 나라에 대한 연구를 더욱 증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과 연구의 정량적 확장과 정성적 질 향상을 진작시키는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오랫동안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고립된 동남아 소국으로 남아 있었던 데다 한국에게는 교역과 민간교류 측면에서도 최근까지 큰 비중과 매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였다.

한국은 1995년에 라오스와 수교 관계를 복원하였고, 1997년에는 캄보디아와도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교역, 인적 및 물적 교류 등

이 급증하고 있으나 20여 년간의 외교적 단절 기간에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 학계는 아직까지도 이 두 나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전문 연구는 극히 소수 연구자들의 업적에 의존해 온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 논문은 지적해 준다. 특히 한국의 대학들에는 캄보디아 및 라오스 관련 어문학 및 인문·역사교육을 연구하고 교수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물질 여건들도 부재 내지는 태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인적 교류와 연구 심화에 필요한 인문 및 사회과학에 관련된 토대 연구 여건들을 구비하고 지원해 나가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드러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최근 한국의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보육 제도가 한국이 참조 가능한 선진형 사례의 하나로 종종 거론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영유아 보육과 아동기 교육의 이원화 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먼저 관련 정책과 두 나라의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수반되는 사회역사적 맥락과 보육제도 운영 사례들을 예의 검토하고, 관련 법체계의 시발과 정책 변화 과정 및 발전 경로에서 나타나는 두 나라의 특수성, 공통점 및 차이점들이 예상되는 바, 이 차이와 유사점들에 대한 이해와 숙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강현구·이순형의 “한국과 일본 영유아 보육제도 비교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두 나라 사례들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 및 체계적 분석 기초를 정립하는 데 적실한 선행적 탐색연구를 시도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을 관련 법체계의 내용과 정책 결정과 변화 과정, 그 양상과 특징 등에 대한 관련 문헌들과 법규 자료들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보육 관련 법체계와 정책 결정 과정 면에서 한·일 양국의 보육제도는 요보호 아동을 위한 전통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는 점에는 서로 공통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법령 체계, 교사의 자격 및 역할, 보육 시설 입소 자격 및 절차, 공적 영역의 책임 비중 변화 등의 세부적 정책 내용과 운영 측면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보육에서의 국가 책임을 감소시키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에 한국은 민간 중심의 보육에서 점차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연

구의 주요 함의는 앞으로 한·일 양국 보육 제도의 비교연구에 있어 특히 제도 변화의 경로와 정책회로들을 고려한 면밀한 비교연구의 범위와 연구 방법의 진작을 기하고, 시의와 정책 개발에 활용 가능한 적실성 높은 국가별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일 두 나라의 복지 정책과 보육 관련 법제 연구와 관련해서 이 글이 후속될 연구와 비교 분석에 필요한 이론 개발과 연구 방법론 개선에 도움을 주며 관련 분야에 대한 학계의 연구 ‘갭’을 메워 줄 수 있는 탐색적 비교 사례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가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편집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난 3년간 『아시아 리뷰』가 창간 정신을 살려 매진해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번 4권 1호를 발간하며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훌륭한 연구논문과 서평을 기고해 주신 집필자 분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논문 심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한다. 아울러 『아시아리뷰』의 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2014년 6월

참고문헌

- 김경동. 2011. “아시아란 무엇인가?: 인식과 정체 의식.” 『아시아리뷰』 제1권 제1호, 37-58.
- 김우창. 2011. “정신인간학과 인간이해의 여러 차원: 근대와 아시아적 전통.” 『아시아리뷰』 제1권 제1호, 9-36.
- 안청시. 2012. “편집자의 말, ‘아시아 다시보기’에 대하여.” 『아시아리뷰』 제2권 제2호, 1-11.
- 엄구호. 2012.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동향.” 『아시아리뷰』 제2권 제1호, 121-152.

『아시아리뷰』, 2011, 제1권 제2호.

『아시아리뷰』, 2012, 제2권 제1호.

『아시아리뷰』, 2012, 제2권 제2호.

『동아일보』, 2014/5/24.

